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민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전북 완성”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자치도지사 후보 확정
내발적 발전 등 기치로 당선·민심 사로잡아
“경선 과정의 갈등 봉합, 전북 발전 에너지로”



차별화를 꾀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전북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당원과 도민에게 강하게 각인되며

어 전북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그는 전북 14개 시·군을 돌며 들은 민심을 언급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다. 무엇보다 경선 과정에서 심하게 표출된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특성상 내부 결속이 곧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실력으로 입증해야 하며, 청년층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전북은 지금 변화 가능한 현실적 해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본선을 향한 레이스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발선에 선 이원택 후보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후보가 약속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한 전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만호 기자

경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소득·복지 강화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 소득으로 돌리는 ‘연금 도시’ 구상을 통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수준의 소득 환원을 목표로 하고, 농어촌·예술인 기본소득 확대, 노인생활밀착형 복지 패키지, 보훈 수당 인상과 보훈힐링 공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경제·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5조 원 규모의 ‘전북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15조 원 규모 국민 성장 펀드를 유치해 데이터센터, 퍼지컴AI, 이차전지·수소,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여 성장 과실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교통·인프라·문화·환경 부문에서는 전북 철도망 확충과 통행 편의 개선, 디지털 플랫폼·공공 배달앱·디지털 로드로 삼권 활성화, 2,000㎡ 이상의 햇빛 소독마을 조성, 예술인 창작 기본소득 등으로 소멸 대응과 녹색 전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원택 후보의 강점은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도정에 적극 접목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강조하며 안호영 후보와

특표 요인이 됐다.

또한 정청대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지도 부각됐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당의 결집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해석된다.

경선 내내 이어진 돌발변수로 인해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 간 양측 캠프 모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정도로 치열한 접전 속에서, 이 후보는 끝까지 조지력과 탁월한 메시지 관리, 정책 경쟁력을 유지하며 승기를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승리를 ‘현실적 경제 비전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외부에서 지원과 자본을 들여오는 성장론보다 지역 기반 산업을 고도화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더 큰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향후 전북도정의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후보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선택은 무너진 전북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라는 명령”이라며 “경선 과정의 모든 갈등을 하나로 묶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참사 12주기



지난 11일 서울 송례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의식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전북 역사적 공간서 맺은 백년가약

전라감영서 ‘전북, 마이웨딩’ 첫 결혼식... 공공예식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예식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북 마이웨딩’ 사업이 첫 결혼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일 전주 전라감영(내야)에서 ‘전북, 마이웨딩’ 제1호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예식은 전라감영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연출로 진행돼 하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결혼식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결혼 전문업체 ‘바리헌웨딩’이 협력한 민관 협업 사례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품격 있는 예식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도는 사업 총괄을 전주시는 예비부부 부대비용(100만원) 지원을 바리헌웨딩은 예식 연출과 컨설팅을 맡아 역할을 분담했다.

‘전북, 마이웨딩’은 과도한 결혼



지난 11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전북, 마이웨딩 제1호 결혼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차별화된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전라감영과 도립미술관, 도청 잔디광장 등 도내 공공공간을 활용해 맞춤형 예식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전라감영 예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며, 도립미술관에서도 추가 예식이 예정되는 등 예비부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만호 기자

바리헌웨딩
마음을 잇고, 사랑을 연결합니다

“전북 최초 완전 공영제(공영버스) 시행”

- ▶▶ **주인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 마을요구에 맞춰 노선 및 시간을 운영해요
 - 전에 없던 작은 차로 마을안까지 운영해요
- ▶▶ **누구나 500원, 저렴합니다**
 - 주민들의 교통비용이 감소해요
 - 무료환승 가능해요
- ▶▶ **친절하게 모십니다**
 - 공공기관(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요
 - 우리동네 주민이 친절하게 운전해요
- ▶▶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 더 이상 파업은 안돼요
 - 배백거나 빨리 출발 안해요

‘부름부름~’마을 구석구석을 누벼요!

13개 읍면도 운행(46대, 63개 노선, 운전원106명)
*고산북부권 운행 예정('26년 3월 30일)

마을버스 문의처 : 완주군시설관리공단 063-270-9908, 9915

동네를 구비구비 밀리는 부름부름
업무표준서(2017.8.4)

도, 기후부 생태복원 국비 13억원 확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부안·장수·임실 3곳 선정돼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생태축 연결 등 맞춤형 복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장수군 부안군 임실군 등 3개소가 선정돼 국비 13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7억원 범위 내에서 납부액의 5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그동안 시군과 협력해 습지, 저수지, 산림축, 폐도로 등 다양한 훼손

지를 발굴해 왔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8개소, 약 2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장수군은 ‘뜰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일원에 4억5,000만 원을 투입해 1만 3,550㎡ 규모의 산림생태축과 멸종위기종 새빨투구꿩 서식처를 복원한다.

부안군은 건설제 일원 7,494㎡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임실군은 대정저수지 일원 7,480㎡에 동일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시연못, 자생지 보전과 생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태축 연결과 생물다양성 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사업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축 연결과 생물다양성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내 생태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